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꽃술로 표현된 여성성의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신 지 안

# 꽃술로 표현된 여성성의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노재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신 지 안

# 인 준 서

신지안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 작품은 창조적 주체인 예술가의 시선이 만들어 낸 독자적인 결과물이다. 예술가의 시선은 외부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예술 작품에는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예술가들은 성별에 따라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고유의 시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성이 예술 작품의 창조적 주체인 경우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모습, 여성성(femininity)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여성이기에 여성이라는 자각과 함께 출발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상징되는 꽃의 존재적 가치를 조형화함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구체화하며 나아가 좀 더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품의 모티브가 꽃이라 하더라도 꽃잎은 외형에 불가할 뿐이고 꽃의 핵심은 꽃술에 있다고 본다. 꽃술은 꽃의 중심으로 꽃의 존재 가치를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꽃의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닌 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꽃술을 형태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은 모두 『Dreaming.....』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고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고민하는 순간 내면에서 느낀 충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자신을 꿈꾼다는 뜻이다. 여성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꽃무늬 천을 이용해서 수공적인 작업으로 역동적이고 꿈틀거리며 뻗어나가는 생명성을 꽃술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본인만의 꽃술을 부드러운 느낌의 천으로 감싸안아 또 다른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신 이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과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본 논고에서는 꽃술과 여성의 정체성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에 있는지 이론적으로 서술하고 또한 조형적 형태와 재료적 표현에 근거하여서는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왜 꽃술을 통해서 여성의 본질을 나타내려 했는지 작품이 형성된 근거를 서술하였고, 제 II 장 본론에서는 여성의 본질과 꽃술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 III 장 결론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앞으로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더욱 깊이 통찰할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의 계기로 제시하였다.

# 목 차

I. 서 론 .....	1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	3
1) 본질적인 여성성 .....	3
2) 꽃의 상징성 .....	7
2. 형태적 표현 .....	10
1) 도입된 형태 .....	10
2) 표현된 형태 .....	12
3. 작품분석 및 재료 기법 .....	14
III. 결 론 .....	22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 I. 서론

예술작품은 자유정신의 소산이며 작가의 미의식을 통한 창조적 표현 활동으로 예술가들은 오래 전부터 예술 활동의 소재나 원리를 자연에서 찾았다. 인간에게는 예술의지(Kunstwollen)라고 불리는 창작에 대한 충동이 있으며, 창작 활동의 모태인 자연에서 끊임없는 동경과 열망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 표현해 왔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자연은 끊임없는 미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며, 예술가들이 자연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와 법칙을 인식하게 된다. 변화, 통일, 비례, 대조와 같은 미적 질서의 관찰을 통하여 얻는 직관으로 자연의 실체와 자신의 내면세계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나타낸다.

쿨링우드에 의하면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감정을 이입시킨 생명력을 주는 표현적 묘사의 재현과 표출로

자연의 이미지는 예술작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술가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진정한 감정과 의미를 찾아내고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어야하며 미를 재창조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꽃술을 형태화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표현하고 성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작품의 모티브가 꽃이라 하더라도 꽃잎은 외형에

---

1) 김 수평. 『조형 원리』, 대한상공출판사. 1976.

불가할 뿐이고 꽃의 핵심은 꽃술에 있다고 보며 꽃술은 꽃의 중심으로서 꽃의 존재 가치를 있게 하기 때문이다.

흔히 남녀를 자연에 비유할 때에 남성은 벌, 나비로 일컬으며 여성은 꽃으로 일컫는다. 그것은 꽃은 가장 대표적인 미의 상징으로 만인에게 회자되는 아름다움의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꽃은 인간에게 순수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지게 해주며, 끊임없이 미의식을 자극하고 창조에의 충동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인간은 꽃의 형태에서 아름답고도 화려함을 감지하여 미술 활동으로 이끌어 낸다.<sup>2)</sup>

본고에서의 여성성이란 독자적인 인격체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 표현, 추구하는 과정이며 그것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중심적인 의도는 여성 스스로가 현실적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를 주제로 본인 작업에 나타난 형태는 어디서 출발하였으며, 그 발상을 추적하고 꽃술을 통해 표현된 조형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되는 여성성을 꽃술을 통해 형태화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논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재인 꽃무늬 천을 선택하였고, 그 소재로 꽃술을 형상화 하였다. 또한 본인 작품을 통해 논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좀 더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정립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이청자. 『관화, 꽃, 작품, 포스트모더니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학위논문. 2004.

## II. 본 론

### 1. 이론적 배경

#### 1) 본질적인 여성성

본인의 작품은 여성성을 꽃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페미니즘 예술이라는 것이 여성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지만 본인은 꽃술 작품을 통하여 여성성이 무엇인지 연구하려고 한다.

아름다운 꽃보다는 꽃의 중심인 꽃술을 통해 이 시대 여성성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다가가고자 한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사실상 여성성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녀구분의 차원에서(sex의 개념)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고, 사회적 존재로서(gender의 개념)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첫째,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욕구와 특질, 역할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보수적 남성 우월주의자나 성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공간 지각력, 언어 능력 등에서 보이는 차별성이 유전자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

---

3) 김진기,조미숙,황수진 공저. 『페미니즘문학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pp28-29

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남녀의 본성적 차이는 초기부터 존재하지만 후천적 교육에 의해 강화된다는 이론이다. 일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이 견해는 남성과 여성의 본래적 차이가 조금은 있으며 그것이 교육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여성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견해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생에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 남성과의 사이에서 종속적 존재로 규정해 왔다. 한국여성의 인생은 전통적 환경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억압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유교의 원리가 여성 억압에 작동하고 있다.

그 중 가부장제라는 사회 구조와 문화가 한국여성을 억압되고 왜곡된 개념으로 통용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힘입어 여성들은 왜곡된 여성성을 내면화하고 남성들은 여성억압을 더욱 구체화, 제도화하게 되면서 그 모순 구조는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가부장적 사회제도 안에서 유교는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수동성, 소극성, 순응성 등의 특질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그에 합당한 여성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강요되었다. 보통 우리가 ‘여성스럽다’, ‘여자답다’라고 하는 단어로 유추하는 여성성은 여성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이고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고정된 틀일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 안에서의 여성성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동시에 여성들에게 투사한다. 그러나 여성을 신비화하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은 여성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한다. 여성들 역시 남성들의 관점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는 곧 아는 만큼 보이듯 인식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은 내가 본 것을 믿을 것인가 남성이 말한 것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한다는 말과 같다. 그만큼 남성의 사고를 여성에게 주입시켰거나 여성 스스로가 남성에게 의존한 결과인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은 여자라서 당연히해왔던 인정받지 못하고 성취감 없는 노동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고 열등감과 분노, 불평, 불만의 새로운 인식을 갖고,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런 삶의 방식을 알아야한다.

가부장제에서 일방적으로 참거나 희생되어야 했던, 남성(타자)의 인정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선택해서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회변화나 시대적 변모에 따라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은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성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변화 가능한 속성인 것이다

김미현은<sup>4)</sup>여성성은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았으며 그것은 변화가능하며 관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p31

본 논고에서의 여성성이란 여성의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아는 여성성의 한계를 깨닫고 단 한발자국이라도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누구나 특히,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성이 아닌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 된 여성성을 형상화하는 작업이었으며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 2) 꽃의 상징성

꽃은 수세기 동안 미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상징의 복합적 기능을 하여왔다. 꽃은 인간에게 탄생과 성장, 죽음, 소멸의 순환을 함께하는 생명체로서 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계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성장과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sup>5)</sup>

꽃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면서 한편으로 평상시 생활감정 뿐 아니라, 속내를 은유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인도 일반적으로 벌과 나비가 남성으로 상징되는 것에 반하여 여성으로 상징되는 꽃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꽃술에서 얻고자 하였으며, 이는 다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될 것이다.

---

5) Benjamin Rowland. 『동서미술론』. 최민(역). 서울 열화당. 1982.p.172.

꽃은 비록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피어나 자라고 소멸의 순환을 함께하는 자연의 생명이 순응하는 장소로서 자연의 법칙 안에 존재한다. 또한 꽃이 내재한 생명감 그 자체만으로도 미적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간은 꽃을 가꾸고,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며, 인생을 꽃에 비유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한다.

여러 예술가들이 꽃을 소재로 표현하게 된 것은 자연의 일치를 원하는 마음에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예술의 소재로 많이 조형화된 꽃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매력적인 미적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예술적 영감과 상징적 보고인 꽃은 아름답다고 하는 진리가 있어 수세기 전부터 인간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는데, 꽃이 지닌 이미지와 형상, 색채, 질감들의 자연미를 조형 활동에서 시각화하려는 행위는 미의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의 꽃은 중세 후기에 일반화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1550년경에 그려진 크레타 섬의 벽화에 나온 백합 그림은 농작의 상징이었고, 수렵가나 어부, 선원을 보호하는 여신을 상징하였다.<sup>6)</sup> 15세기 르네상스에서는 꽃이 종교적 우의를 암시하고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과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아르누보에서는 장식적, 상

---

6) 한국일보 타임 라이프. 『라이프 자연시리즈:식물』. 1971

7)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징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더욱 활발히 표현되어 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의 미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게 되었다. 아르누보의 모티브인 다채로운 꽃과 식물의 형상은 난숙해가는 도시 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당시 유럽인들의 심상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연의 상징으로 승화되어 예술을 통해 인간의 요소를 재생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7)</sup>

꽃의 완벽한 조화미와 색채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생활과 종교적 감정의 정신적 만족으로 표현되었고, 도시 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상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자연의 상징으로 승화되어 인간의 미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게 되었다.

꽃의 이미지로 조형 표현 활동을 하여 예술로서의 상징으로 승화시킨 예술가로는 슬픔, 두려움, 희망, 기쁨, 절망등의 깊은 인간마음의 세계에 있는 잠재의식을 왕성한 삶의 환희로 표출한 반 고흐(Vincent Van-gogh)와 예술 속에서 자연의 근원적 비밀에 도달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생성물에 형태를 부여한 원동력에 관심을 기울여 꽃의 형태가 아닌 꽃이 피어나는 생명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파울 클레(Paul Klee)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작업도 표현 양식 및 매체에 있어서 이들의 작품과는 다르지만 꽃을 주제로 하여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그 뜻이 일치한다 할 수 있다.

꽃 즉, 꽃술에 본인의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단순한 꽃술의 이미지를 넘어서 여성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동적이고 정체되어 기다리기만 하는 고정 관념적인 꽃, 그리고 그것이

유하는 여성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꿈틀거리며 뺨어나가는 꽃술 즉, 정체성을 가진 여성을 함축된 의미로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형태적 표현

### 1) 도입된 형태

예술은 결코 우연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며 주최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지며 제작 의도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나 생각, 느낌이라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곧 조형성으로 재구성되며 이 조형성은 예술 표현으로 나타나 정서와 심미적 감동을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톨스토이(Tolstoy)는 예술은 어떤 외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한사람의 인간이 의식적으로 그가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인간적인 활동이라 하였고, 콜링 우드(R. G. Collingwood)는 예술 작품의 본질을 상상력을 통한 정서의 표현이라 했으며, 벨(C. Bell)은 미학의 모든 체계의 출발점은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고 하였다.<sup>8)</sup>

그래서 본인에게 여성으로 상징되는 꽃이라는 소재는 단순히 시각적 소재라기보다는 본인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과거의 삶에

---

8) R. Amheim. 『예술심리학』. 이재은(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서 겪었던 기억 속의 여러 가지 삶의 소재이다.

사실상 꽃의 아름다움은 꽃잎에 있는 것이 아니라 꽃술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꽃술을 두고 그 일반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고 싶진 않다. 본인은 꽃과 자신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꽃술에 대해서 보다 깊고 정확하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깊이 사색해서 그 내면을 살펴 꽃술과 나를 혼연일체로 보고자 했다.

기존의 인식에 따른 꽃술은 여성으로 비유되는 부분에서도 더욱 더 여성스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꽃술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잉태인 것이다. 꽃술은 그 자체로 그 식물의 유전자은행이고, 자연과 입 맞추는 입술이자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인 것이다. 꽃술은 꽃의 부분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강하며, 생식기로서 생명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간 즉, 여성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본인의 작업에 있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꽃보다는 그의 핵심인 꽃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생명력을 통한 희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력이란 지속적인 운동의 변화이며 정신과 물질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지속적인 창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꽃술에 새로운 이미지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사고와 의식의 틀을 깨고, 보편적인 윤리적인 개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자신을 찾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모두 Dreaming... 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고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고민하는 순간 내면에서 느낀 충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자신을 꿈꾼다는 뜻이다. 정체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ing가 그 뜻을 대변해준다. 생명력에 대한 도전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신 이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과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 2) 표현된 형태

본인의 작품 모티브는 꽃이며, 더 엄밀히 말하면 꽃술이다. 여성의 상징을 꽃이라 보았으며 그 꽃의 핵심은 꽃술이기 때문이다. 꽃술 작품의 작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 숨은 여성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형상화해야 할 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은 결코 꽃 또는 꽃술을 굳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똑 같은 모양을 갖고 생산되는 제품처럼 찍으려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더 밝고 화사한 색채와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꽃술에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 보고 하나 하나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고 정성을 들여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작품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성성, 그 근원적 가치를 소박하고 수공적인 것들에서 찾으려한 것이다. 나염처리 되어 대량생산된 이불보 같은 꽃무늬들의 천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결코 잊혀 지지 않는 유년의 기억이며 추억이기도 하다. 인간과 자연, 여성과 모성, 추억과 인생의 순환 등..... 한 여인으로 느꼈던 온갖 기억들을 작품을 통해 쏟아내하고자 하였다.

꽃문양이 인쇄된 부드러운 천은 여성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며, 과거 기억 속의 삶에서 흔적이 되어 진 상처를 감싸고 새살이 돋길 기다리듯 본인만의 꽃술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안아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파란색 천으로 감싸진 꽃술은 어느 집단에

서든지 유달리 잘나거나 못나거나하는 돌연변이를 표현한 동시에, 시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루함에서 벗어난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본인 작품에서는 꽃술의 세계를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꽃술

하나하나에도 스스로의 삶의 역정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크게 확대 표현했으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비틀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경쟁사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꽃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기에 인간사회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사회일지도 모르는 자연세계에서 버텨야할 것이다. 그래서 꽃술은 자연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인내와 고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인간사회 즉, 남성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르짖는 여성의 삶과 닮아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꽃술은 하나 둘 흩어져 있는가 하면, 어느새 빼곡하게 응집되어 꽃술 자체가 마치 활짝 핀 꽃을 연상시킨다. 마치 전시장 전체를 화폭삼아 자유롭게 드로잉을 한 것처럼도 연출했다. 그 과정은 여성에게 영적 치유의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꽃술의 몸체는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 유기적인 곡선으로 처리했고 끝부분은 뾰족하게 처리해서 여성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사고로 지금보다 앞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보기 좋은 부드러운 꽃무늬 천으로만 감싼 외형만 보고서는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외모만 보고서 인간을 판단하는 그릇된 사고를 풍자하기도 했지만 여성들도 타인에게 보여 지는 외모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더 성숙시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고 그에 순응하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 애인이 아

닌 내면에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인생은 얼마나 더 아름답다울 수 있는지, 그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 3. 작품분석 및 재료 기법



【작품 1】 Dreaming....., 가변크기, 혼합재료, 2010

## 【작품 1】 Dreaming.....

작품재료 : 꽃무늬 천, 반생, 철사, 녹화끈, 핸디코트

작품크기 : 가변크기

제작연도 : 2010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후 철사와 반생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든다.
- 2) 녹화끈을 감아서 부피를 만든다.
- 3) 핸디코트를 형태에 따라 바른다.
- 4) 마른후 굴곡진 부분을 사포로 갈아낸다.
- 5) 세로로 길게 재단한 꽃무늬천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형태에 감는다

내 용 :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꽃의 핵심인 꽃술을 형태화한 작품이다.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가진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해 몸체를 비틀어 운동감을 주었으며 끝 부분을 뾰족하게 처리해서 멈추지 않고 위를 향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짐을 형태로 표현했다. 꽃술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노란색을 사용했다.



【작 품 2】 Dreaming....., 가변크기, 혼합재료, 2010

## 【작품 2】 Dreaming.....

작품재료 : 꽃무늬 천, 반생, 철사, 녹화끈, 핸디코트

작품크기 : 가변크기

제작연도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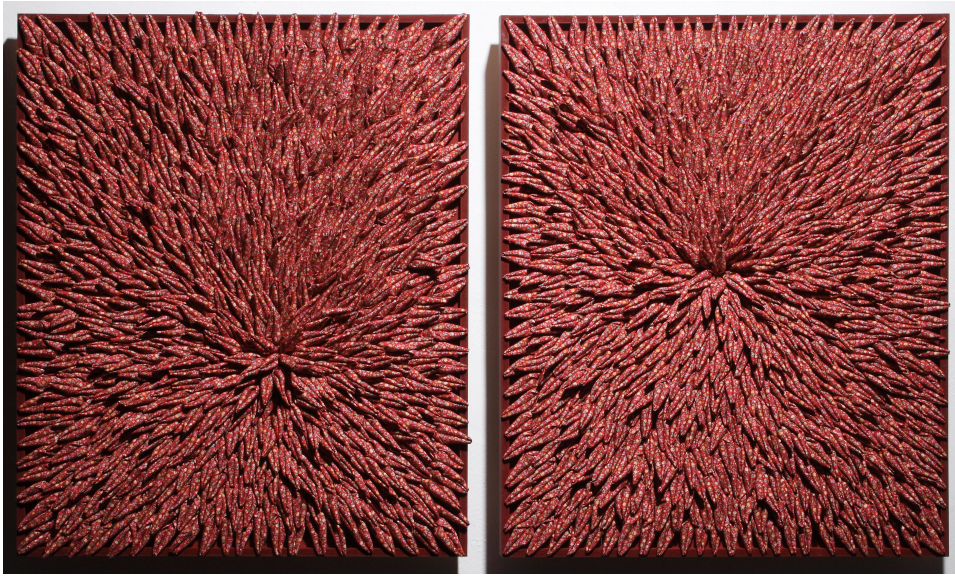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후 철사와 반생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든다.
- 2) 녹화끈을 감아서 부피를 만든다.
- 3) 핸디코트를 형태에 따라 바른다.
- 4) 마른후 굴곡진 부분을 사포로 갈아낸다.
- 5) 세로로 길게 재단한 꽃무늬천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형태에 감는다

내 용 :

작품1에서 보다 더 역동적이고 꿈틀거리며 뺨어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처리해서 바닥에 기어 가는듯한 형태로 배치 시켰다.

끝부분을 뾰족하게 처리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했으며 몸체를 비틀어 운동감을 주었다. 꽃술의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해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붉은색천을 사용했다.



【작품 3】 Dreaming....., 1.000x600(mm), 혼합재료, 2010

### 【작품 3】 Dreaming.....

작품재료 : 꽃무늬 천. 철사. 실. 본드.

작품크기 : 1.000x6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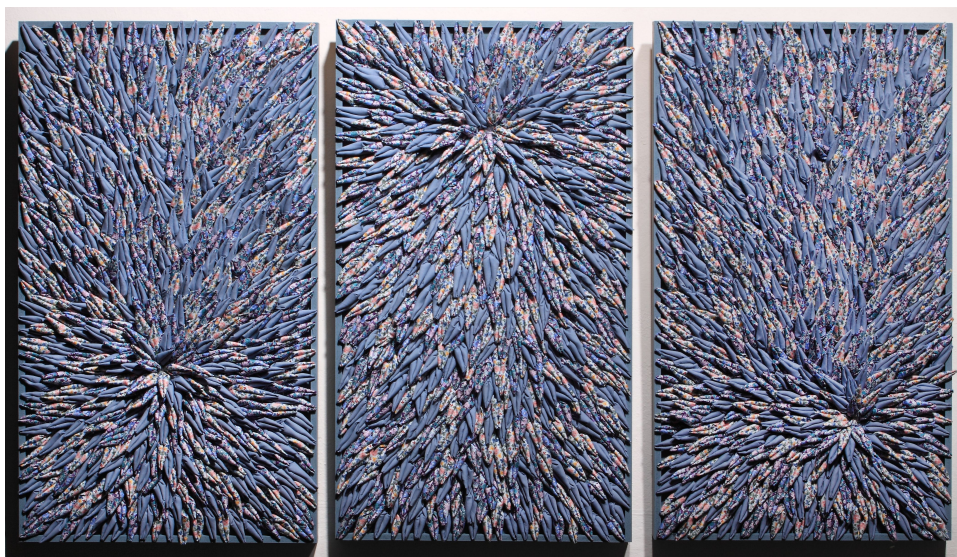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10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후 철사를 작게 자른다.
- 2) 자른 철사에 천을 감아서 부피를 만든다.
- 3) 실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준다.
- 4) 튀어나온 천을 가위로 정리해서 완성된 모양을 만든다.
- 5) 완성된 여러개의 작은 꽃술모양을 본드를 이용해 차례차례 접착시켜 전체적인 완성을 한다.

내 용 :

작품1, 2에서 보여준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비전을 향해 뻗어나가는 형태보다는 자연의 세계도 인간의 치열한 경쟁사회와 다를 바 없음으로 해석해서 많은 수의 꽃술을 만들고 회화적으로 배치시켜 치열한 자연의 경쟁사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꽃술 하나하나에도 나름대로의 삶의 역정을 지니고 있다 보고 수공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똑 같이 생긴 모양이 없게 했으며, 꽃술의 강한 화려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빨간색 꽃무늬 천을 사용했다.



【작 품 4】 Dreaming....., 1.200x700(mm), 혼합재료, 2010

#### 【작품 4】 Dreaming.....

작품재료 : 꽃무늬 천, 철사, 실, 본드

작품크기 : 1200 x 700 (mm)

제작연도 : 2010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후 철사를 작게 자른다.
- 2) 자른 철사에 천을 감아서 부피를 만든다.
- 3) 실을 이용해 모양을 잡아준다.
- 4) 튀어나온 천을 가위로 정리해서 완성된 모양을 만든다.
- 5) 완성된 여러개의 작은 꽃술모양을 본드를 이용해 차례차례 접착시켜 전체적인 완성을 한다.

내 용 :

꽃의 핵심인 꽃술을 회화적으로 형태화한 작품이다.

작품1, 2에서 보여준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비전을 향해 뻗어나가는 형태보다는 자연의 세계도 인간의 치열한 경쟁사회와 다를 바 없음으로 해석해서 많은 수의 꽃술을 만들고 배치시켜 치열한 자연의 경쟁사회를 표현한 것이다. 꽃술 하나하나에도 나름대로의 삶의 역정을 지니고 있다 보고 수공적인 작품제작을 통해 똑 같이 생긴 모양이 없게 했으며, 꽃술의 돌연변이 집단을 표현하기 위하여 파란색 꽃무늬 천을 사용했다.

### Ⅲ. 결 론

예술은 감정의 어떤 정통한 의식을 가지고 그 형식들을 예술 대상으로 투입하여 감정의 본질을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을 통해 인간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의 기본적인 형식들을 전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상징되는 꽃, 그 중에서도 꽃술의 형상을 통해 여성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는 자아도취나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님은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시각에서 보는 꽃에서 벗어나 보다 깊고 정확하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꽃의 내면을 보고자 했으며, 꽃술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제 여성들도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기준들에 의해서 남성들과 구분되어 사회화된 존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남성들과 동일한 지위와 대우를 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인 작품의 꽃술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생명력을 통한 희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일생은 얼마나 더 비전적이며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수동적이고 정체되어 기다리기만 하는 고정 관념적인 꽃에서 비유되는 여성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꿈틀거리며 능동적으로 뻗어 나아가려는 생명성을 함축한 꽃술로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한 인간으로써의 여

성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그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꽃  
술 작업의 이유이다.

뒤틀어진 유기적인 형태를 위한 딱딱하고 거친 속 재료들은 상처받은 인간의  
숨겨진 마음을 치장한 외모만으로는 읽어 낼 수 없듯이, 부드러운 꽃무늬 천  
으로 감싸진 꽃술의 형태는 인간의 그것과 같음을 표현했다. 부드러움 뒤에  
숨어 있는 여성의 강인함은 곧 여성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도 있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관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작품의 다  
채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기르는 동시에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작업에 임할 것  
을 다짐하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작품제작을 통하여 본인만의 독자  
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이루어 현대미술의 맥락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  
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이청자. 『판화, 꽃, 작품, 포스트모더니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학위논문. 2004.
- 2) 벤자민 로울랜드. 『동서미술론』. 최민(역). 열화당. 1982.
- 3) 김진기. 조미숙. 황수진 공저. 『페미니즘문학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 4) 김미현. 『한국 여성 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5) 학국일보 타임 라이프. 『라이프 자연시리즈;식물』. 1971.
- 6)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7) R.Ambeim. 『예술심리학』. 이재은(역). 이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 ABSTRACT

A study of femininity represented the gynandrous

-On the basis of my work-

Shin Zi An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work of art is the independent product that eyes of artists who are an creative main agents make. The work of arts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m because eyes of the artists are m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elements. The artists make their own eyes in the social cultural relation ship according to genders. In case of that women are the creative agents of works of art, femininity which is the women's features and is different from men is reflected in them.

As Simone De Beauvoir said that women get to begin something with the self awareness that they are women when they try to write themselves in 『Le Deuxieme』, their recognition of gender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creativ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several problems about women's identity by modeling existent value of flowers which generally symbolize them, specify it theoretically and build more creative work world because I am a woman.

Even though a motif of the work of art is a flower, flower petals are just appearance and the core of flowers is the stamen and pistil. It's because they are the center of flowers and make the existent value of flowers exist.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esent women's identity seriously by shaping the stamen and pistil which can be the core of flowers, not external beauty of them.

The names of my works have all 「Dreaming...」 in their subjects. It means that women understand their shock that they feel internally when they agonize over trying to define their own existence raising its questions and they dream of another themselves.

I tried to present vitality which is dynamically spreading by manual work using floral pattern fabric which is familiar to women. I try to make another yourself who am dreaming of by wrapping your own stamen and pistil with fabric of soft feeling. Having a dream make you feel vitality because it means that yourself want to be a ideal person.

This paper tries to theoretically describe how the stamen and pistil have

relationship with women's identity and clarify what kind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y have based on the formative shape and material expression.

I described why I tried to present the nature of women with flowers in the Chapter 1, Introduction and di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of women and the stamen and pistil in the Chapter 2, Body. And finally, I suggested the result through this study as a chance of a new prospect that you can discern my works more deeply in the future in the Chapter 3.